



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2일 화요일 음 5월 27일 (4물)

한라칼럼

기상정보

흐리고 비



제주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4-25°C, 낮 최고기온은 26-31°C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1.5-3.5m로 일겠다.

Table with precipitation forecasts for Jeju, Seosan, Gosan, and Seogwi for the morning and afternoon.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and moon phases for Jeju.

자외선지수 보통 산물위험지수 낮음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25/30°C
모레 비 24/32°C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파키스탄 북동부 교도소서 20명 탈옥

1명 사살·19명 도주

파키스탄 북동부 교도소에서 재소자 20명이 탈옥했다고 AFP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교도소. 연합뉴스

탈옥은 지난달 30일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무자파라바드에서 남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라왈라코트 시(市)의 푼치 지역 교도소에서 일어났다.

이들의 탈옥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탈옥을 시도한 20명 중에는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된 이들도 포함됐으며 한 명은 사살됐고 나머지 19명은 도주 중이라고 교정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또 이들은 교도소를 빠져나갈 때 권총을 이용해 보초를 인질로 삼기도 했다.

경찰은 라왈라코트시 진출입로를 차단하고 수색 작전을 벌이고 있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탈옥자들이 권총을 교도소 관리들에게 빼앗았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반입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교도소들은 과밀 수용, 열악한 환경, 부패, 인권침해 등으로 악명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과거 무장단체들이 몇 차례 대형 탈옥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2012년 북서부 카이바파크 툰크와주 반누시 교도소에서는 재소자 400명가량이 탈옥했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fax, and website details.



문만석 한국지역혁신연구원·법학박사

세계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사막 기후의 두바이에서 만나질 만에 1년 강우량에 해당하는 폭우가 내리고, 그린란드의 빙하는 시간당 3000만 t씩 녹아 없어지고 있다. 어느 곳에서는 폭염이, 다른 곳에서는 폭한이 지속되는 기후의 변덕이 심상치 않다. 얼마 전까지 통용되던 기후 변화라는 용어는 이제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비상사태로까지 불리며 위기감을 키운다. 기후 위기로 인한 '기후난민'이 2050년에 10억명에 이를 것이라는 비판적인 전망이

기후 위기 시대의 대응

잇따르고, 각국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기후소송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낸 단체에 8만 유로의 배상금 지급을 선고했다. 이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정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밝힌 첫 번째 판결이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이 진행 중이다. 기후소송 청구인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충분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재판소는 2020년부터 계류된 4건의 기후소송을 병합해 한국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청구인이 주장한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

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의 의무이고, 이를 위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기후가 곧 경제이고 인권인 시대가 되고 있다. 기후경제는 시장경제를 넘어선 녹색경제를 추구한다. 녹색경제는 모든 존재의 생명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경제이다. 생태계 보전,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 재생 에너지 전환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건전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한다. 이제 기후경제는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는 요소이고, 탈탄소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의 과제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 비전을 선포했다. 재생 에너지 및 그린수소 확충

과 더불어 국가 정책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을 통해 2035년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이다. 이 비전이 단지 공허한 유희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민의 참여와 동의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학자 에리카 체노위스는 '3.5%의 법칙'을 통해 한 나라의 인구 3.5%가 행동하면 사회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설교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의 전환은 최소 3.5% 인구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가장 성공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달성한 독일의 성공 요인은 에너지 협동조합 등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국민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였다는 데 있다. 비전은 실현 가능성이 전제될 때 효력을 지니고, 실현 가능성은 참여하는 시민의 힘으로 현실이 된다.

열린마당

농지대장 변경사항 신청하세요



진유경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매년 3월이 되면 농업인들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 공익적 목적을 신청·접수를 한다. 이 과정에서 농지대장에 신고 및 변경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공익적 목적의 신청이 늦어지거나, 못하는 상황들로 인해 행정기관 직원들과의 마찰도 끊이지 않는다. 농지대장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인지 아직까지도 농지대장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다. 농지법(22.8.18) 개정으로 2022년 4월 15일부터 개편·시행된 농지대장 제도는 농지 단위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필지에 대해 발급·관리

되는 제도이다. 소유자(또는 임차인)가 농지의 임차인(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와 농축산물 생산시설(농막·축사·고정식온실 등), 토지개발시설(수로·제방)을 신규로 설치하는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사항 발생 시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을 변경 신청하도록 의무화됐다.

그러므로 농지임대차계약 등 농지이용 정보 변경 시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또는 임차인)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대장 제도가 시행된 지 2여년 됐지만, 농지대장 변경사항 발생 시 농지대장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제라도 농지대장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사항을 잘 이행해 과태료 부과 또는 각종 농업보조지원사업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항상 유념해야 한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아시나요



임현주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취지 및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출생통보제의 도입 취지는 2023년 6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진행절차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일부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한다. 이를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할 것을 통지한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된다.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가족관계등록신고가 시간과 경제적 부담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기대해 본다.

JM Group JEM Information advertisement with contact details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JEM products and service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products.

Advertisement for JEM products, featuring '미래향, 우리향, 사라향, 달코미' and '신비향, 수관향, 설국향'.